

국무총리 모두말씀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공기관장 간담회, 7.28(금) -

- 오늘 비가 오는데도 멀리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공공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것이 6년 전입니다만, 벌써 개막식이 200일에 임박했음
 - 경기장 시설을 포함해 하드웨어는 갖춰져 가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미진한 것이 사실임
 - 국민들 사이에 관심의 고조라든가 경기장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민간의 협력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충분한 준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련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공공기관장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모시기 전 한달 전쯤 동계올림픽 지원단체장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도움을 요청 드린 바 있음
 - 오늘 여러분께 똑같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음
 - 대통령께서 D-200일 앞두고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위원장님이나 담당 장관님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으로 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랜만에 대한민국이 개최한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반드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음
 - 그런 마음에 기관장님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람
 - 아무쪼록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동계올림픽 지원예산이 540억 원 가량이 책정이 됐음.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대로 반영이 안됐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만큼 반영을 했음
 - 원래 강원도와 조직위원회에선 최소 67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단 540억원은 예산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체육진흥 기금 같은데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정부로서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동계 스포츠가 우리가 많이 취약했던 분야입니다만 불과 십 수 년 사이에 세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함
 - 이런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을 하면 국민들의 스포츠레저 수준도 달라질 것이고 국민들의 생활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 기대함